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사	자
강릉 033. 651. 1385	사천 055. 833. 9981	전주 063. 224. 5501
거제 055. 682. 4950	서귀포 064. 762. 1400	제주 064. 711. 8325
경주 054. 772. 8141	서울 02. 3705. 6000	제천 043. 646. 6009
고양 031. 919. 4040	서천 041. 951. 6400	조치원 041. 865. 2432
광명 02. 895. 1966	성남 031. 701. 2501	증평
광양 061. 762. 0012	속초 033. 635. 8663	진주 055. 753. 6133
광주 062. 524. 3511	수원 031. 252. 5111	진해 055. 542. 0020
군산 063. 462. 4491	순천 061. 744. 7990	
김해 055. 332. 6000		
나	아	차
남양주 031. 577. 7762	안동 054. 854. 5482	창원 055. 283. 9488
남원 063. 632. 7002	안산 031. 483. 6536	천안 041. 575. 0961
논산 041. 736. 7393	안양 031. 455. 2700	청주 043. 265. 3700
	양산 055. 367. 1144	춘천 033. 254. 4878
	여수 061. 654. 2161	충주 043. 848. 3240
다	야	타
대구 053. 652. 0070	경주 054. 772. 8141	통영 055. 641. 2537
대전 042. 254. 3035	울산 052. 247. 3520	
동해 033. 531. 3007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마	익	파
마산 055. 246. 8746	익산 063. 857. 8910	파주 031. 945. 5998
목포 061. 242. 1611	인천 032. 424. 0524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바	하	준비회
부산 051. 441. 2221	하남 031. 793. 7771	
부천 032. 668. 9700		
		밀양

한국YWCA 2011.04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겨레의 가슴에, 꽃망을 훌쩍되어 삼천리 방방곡곡 흩뿌려졌습니다. 여든아홉 해의 사랑으로.

한국YWCA

04

Vol. 480 / 2011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연맹회

한국YWCA 89년 역사를 돌아보며

● 김재화(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어떤 역사에, 우리의 시간이 기록되니까.
한반도에 몰아친 풍란의 시련 이겨냈을 때도
YWCA 역사는 남다른 따뜻한 온기 속에
목마르지 않게 단 비를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좌절과 눈물 있어도 다시 희망을 찾아 드높이
손을 올리고 서로의 어깨를 껴안으며
위로받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샘골의 교사로, 벼들 캠프의 밤낮 없는 열정으로
모였다 흩어져 찾아 나선 각 지역의 활동은
헤아릴 겨를 없이 끊임없이 넓어져서, 이제
한하늘 한땅, 세계 속의 이웃과 가슴을 나눕니다.

90년의 문 앞에서, 100년의 앞을 보며
결코 자랑으로 오만의 꽃 피우지 않으며
시대마다 새롭게 봉사의 띠를 매고
한 세기의 숙성한 열매로 쓰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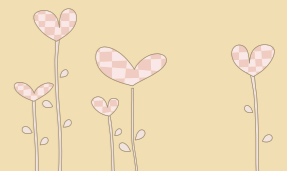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엽서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Contents

- 02 • 한국YWCA 창립 89주년 축하시 | 김재화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되찾은 영성, 울림 _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존재 | 이천진
- 07 • 연간기획 _ 청년정의운동 I _ 스스로 매기는 나의 가치와 점수 | 정 린
- 10 • 청년정의운동 II _ YWCA 안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멘토
- 12 • 청년정의운동 III _ 공생과 소통이 미래의 잠재력이다 | 김경윤
- 15 • 제1차 YWCA 정의포럼 _ YWCA 정의운동은 무엇인가
- 16 • 줄인 I _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YWCA 생명살리기 운동 | 이원걸
- 18 • 줄인 II _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거리모금에 나서다 | 박용욱
- 20 • 행복한 불편 _ 밥상에서 시작되는 외침 | 이현윤
- 22 • Y에 바치는 연가 _ 믿음과 사랑이 샘솟는 우물 | 김형규
- 24 • 회원 이야기 _ 여든아홉 생일을 축하하며, Y에 품은 꿈
- 28 • 이슈 따라잡기 _ 추문으로 떠도는 '춘향이'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 이강보미
- 30 • 문화공감 _ YWCA 청개구리와 세시봉 신드롬 | 김지숙
- 32 • 신간소개
- 35 • Y돌보기 | 정치현실
- 36 • 세계 속의 한국YWCA _ 결혼이민여성 위한 국제운동 펼쳐야 | 세계대회 준비팀
- 38 •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활동보고와 뉴욕스토리 | 이슬비
- 40 • 4월의 YWCA
- 42 • 연합회 소식
- 46 • 복지사업단 결산보고
- 48 • 회원YWCA 소식

2011.04



역량강화 연수



대구, 동해, 부산, 인천YWCA는 신입직원을 비롯한 실무자와 이사·위원 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수를 다녀왔다.



새 학기·새내기 입학식과 개강식



창원YWCA어린이집 입학식, 진주YWCA 노인대학 개강식, 청주YWCA 성인클럽 민들레 인준식, 통영YWCA 사랑의 민들레학교 개학식이 새봄과 함께 열렸다.



가족친화적 행복문화 만들기 캠페인



제주YWCA는 지난 3월 8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가족친화적 행복문화 만들기 캠페인 'Thanks Mom, Thanks Company'를 진행했다. 또한 워킹맘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행복문화 만들기 위한 간담회 '여성이 있어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여유만만(女有萬曼)'을 열었다.

안양YWCA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



3월 8일 안양YWCA는 창립 25주년을 맞이

하여 창립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YWCA 목적문 헌판식, <안양YWCA 25년> 화보집 헌정과 '영상으로 보는 안양YWCA 25년'과 25년 비전영상을 통해 지난 25년간 생명사랑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YWCA 운동의 정신을 확고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YWCA 창립 45주년 음악회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춘천YWCA는 3월 17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구지역 방역에 애쓴 국군장병을 초대, 지역의 사랑에 보답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새터민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난 3월 5일 부산YWCA는 새터민 직장인과 함께하는 '호기찬 직장생활 만들기'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3월 25일 충주YWCA회관에서 각계 기관장 및 회원과 함께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열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찬지원 서비스, 가족체험 활동 및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울 예정이다.

다문화 도서관 '단비' 개관



진주YWCA 다문화 작은도서관 '단비'가 지난 3월 3일 활짝 열렸다. 개관을 축하하고 '한하늘 한땅에서 함께 웃는 다문화이야기'를 펼쳐나갈 다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변은 어렵고 궁색해진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자는 연이어 질문한다.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치는 얼마일까?”

한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 아이가 입을 연다.
“무한대.”

돈을 버는 액수가 그 사람의 가치 평가 기준이라면 존경받는 종교인과 학자 등 역사상의 성인들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렇다면 가치를 매기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일까?

외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찰스 메이어 박사가 얘기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태우면 닭장 하나를 희게 칠할 만한 석회 한 포대, 마그네슘 한 알, 장난감 대포 하나 만들 만큼

의 칼륨, 벼룩 한 떼를 몰아낼 만큼의 유황이 전부이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37센트(500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37센트인가?

반대로 우리 몸의 각 장기를 계산해서 총액을 내어 본 의사가 있다. 그 의사에 의하면 우리 몸은 36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각자의 가치는 모두 360억인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가치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나 만의 가치 기준'과 '나 만의 가치 정의'이다. 사람의 가치를 수치화 할 때는 더욱이 그에 따른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한다. 각자가 기준으로 삼는 가치와 행복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생각하는 그들의 행복에서 벗어나 나의 행복한 성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정의하는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정의하는 나만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나의 가치에서 우리의 가치로

나의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겨진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 스스로가 매기는 가치'가 필요하다.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나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잠재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한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을 내려 보자.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나만의 능력, 나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인내하면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능력을 키우고 나면 나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이 곧 나의 가치를 매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본인이 평가하는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자.

특별한 가치 발견을 위한 하루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좀 더 진지하게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통해,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다”라는 자세를 갖자. 사소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무언가를 잘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당신의 가치는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기를 기원해 본다. 



YWCA 안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멘토

● 글 | 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연합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연합위원들을 차례로 초대해 새내기 실무자로서 첫 발을 들여놓던 때부터 YWCA 지도자로서 성장하기까지의 생생한 체험과 그 안에서 만난 귀중한 인연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직원연구모임을 모두 다섯 차례 가졌다. 김현자 선생님을 시작으로 김영정 선생님, 주선애 선생님, 정희경 선생님을 모셨고 연구모임의 마지막은 강교자 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였다. 한 마디도 한 호흡도 놓칠 수 없었던 소중한 산 역사와 특별한 경험을 전국의 회원YWCA 실무자와 지도자들과 다시 한 번 나누려고 한다. 한국YWCA가 청년정의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이때 뜻뜻한 청년으로서, 당당한 젊음으로서 YWCA에 몸을 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우리에게 큰 그늘을 드리우고 계신 대선배님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리라 믿는다.

“Y는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김현자와 Y는 떼려야

떨 수 없는 한몸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Y에 기여했다기보다 Y를 통해 너무 많이 얻기만 했습니다.”

김현자 선생님은 자신이 어찌다 Y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태까지 왜 못 떠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끈질긴 관심과 사랑으로 학업이든 출산과 육아문제든 모든 편의를 다 봐주시며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박에스터 선생님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Y의 실무자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정보를’ 들고서 기쁘고 명량한 얼굴로 살아야 하며 나와 다른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낮은 자리의 사람과도 소통하고 배려하고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YWCA 안에서 우리는 인종적으로 얼굴생김이 비슷할 뿐 나머지는 모두 다릅니다. 나이도 1929년생인 나는 여러분보다 세 배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YWCA 안에서 다리가 놓여질 수 있도록 교감과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으로 일제식민지하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김영정 선생님.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한 건 거의 없고 다만 내 무릎에, 내 등에 짐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가정과 육아, 직업의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성인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젊은 후배들의 몫이라고 과제를 던져주셨다.

병환을 딛고 일어서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던 주선애 선생님. 미국에 있던 시절 김현자 선생님을 만나 YWCA 얘기를 듣고 처음 Y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난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산만하게 살아오셨다는 말씀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사회 발전과 기독교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Y가 해온 만큼 지금의 교회나 우리 사회가 못하는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Y가 사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주문하셨다.

“YWCA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Y의 본질을 찾기 위해 역사서를 보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가 하면 ‘못해요’ 소리를 못해온 지난 시절을 돌이켜볼 때 여종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다. Y실무자로서 ‘못해요’라는 말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어머니의 머릿속에 들어가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통해 입시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자녀교육 이념을 바꿔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Y의 소명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궁극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Y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후배, 동료, 아랫사람을 잘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배신해서 괴씸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먼훗날 당시 앨범을 봤더니 그 사

람들이 모두 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랑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눈치를 보냈음에도 모르고 단지 유능한 몇 사람만 데리고 앞으로 나갈 줄만 알았다고 절절한 체험을 펼쳐내신 정희경 선생님. 실무자 모두가 YWCA의 보물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시며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셨다.

“우리가 날뛰면 하나님은 쉬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심중에 두면서 확신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면 Y 안에서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1995년 세계대회를 훌륭히 치러낸 경험을 힘주어 말씀하신 강교자 회장님. 하나님이 자신을 Y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곧 Y의 매력이라며 한국의 교회가 교회다음에서 멀어질수록 Y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현재 Y 지도자들의 신앙과 영성이 초기 Y지도자들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젊은 일꾼을 무럭무럭 키울 수 있도록 소망을 함께 나누셨다.

올해로 한국YWCA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여든아홉 해째가 되는 지금, YWCA 대선배님들의 살아있는 체험과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YWCA 청년운동의 역사이며 우리 안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젊은 YWCA, 청년 YWCA의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숨결에 날마다 새롭게 새겨질 수 있는 기쁘고 벅찬 시간으로 새겨지리라 믿는다. 

공생과 소통이 미래의 잠재력이다

● 글 | 김경윤 시인 / 해남고등학교 교사

COMMUNICATION

깊어지는 정신의 사막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 참사는 인간 중심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하고 위태로운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을 도구화하고, 그 스스로 모든 객체들을 대상화하는 근대적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냈다.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대적 경제성장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물질은 넘쳐나는데 정신은 곤궁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황폐화되고 '정신의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시장경제 논리가 판을 치고 모든 것은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의 영혼마저 표준화, 상품화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가치가 상품으로 치환되고 모두가 보다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혹은 보다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는 생존경쟁의 각축장에서 살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공간인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이해하게 하며,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생활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뜬 구름 잡는 것처럼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학교는 '충성 없는 전쟁터'와 같다. 오직 '대학입시'를 향해 돌진하는 전사들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밤낮없이 달려갈 뿐이다.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와는 상관없이 오직 대학 진학에만 내몰려온 까닭으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도 문제다. 대학입시 준비에 시달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학과 더불어

'우선 놓고 보자'는 식의 대학생활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책이 들려 있어야 할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고, 인터넷, 대중음악, 미팅에 심취한다. 혹 책을 읽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웬 책?" "너 아직도 책 보니?"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고 한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 바늘구멍이 되어가는 요즘엔 취직을 위한 책읽기가 아닌 다른 독서는 '낙오'의 상징처럼 여기는 현실이다.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도 '경쟁'이라는 말이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룡 같은 거대 자본이 등장하여 강자에게 유리한 자유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자국 보호 규제를 개방시키려 한다. 이런 '무한경쟁'의 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구는 병들고 있다. 나라마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엄청난 돈을 삼키는 전쟁의 포연은 하늘을 검게 그을리고 있다.

경쟁이 아니라 공생

우리는 그동안 세상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살벌한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그런데 과연 세계는 정말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다른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런 의문을 품은 생명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자연의 세계가 실로 '더불어 사는'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자연계의 동식물들은 상리공생, 기생공생, 편리공생 등 서로 공생하면서 산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생물은 겉보기에는 경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경쟁이 아니라 공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큰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생존경쟁의 살벌한 과정을 생태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생각을 버려야겠다. 사람도 생태의 일부이므로 생태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과 생태에 다 같이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속도를 맹신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는 오염으로 신음하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자.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도 생태계와 같다. 일등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일등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우습게 보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해서 깃밟겠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자연히 각박해지고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소통력이 생존력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경쟁'이 아닌 '공생'의 가치로 세계를 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할 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유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타자와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매일 언어와 몸짓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더욱이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공허하고도 기계적인 소통 속에서 현대인은 내면의 깊은 진실을 공유하지 못한 채 '고독한 방'에 소외되어 있다. 누군가는 현대를 소통 부재의 시대라고 한다.

YWCA 정의운동은 무엇인가?



한국YWCA는 2011년을 'YWCA 정의운동의 해'로 선포하고 YWCA가 추진하는 정의운동의 목적, 영역, 운동방식에 관한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YWCA 내·외부와 소통하며, YWCA 정의운동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31일 첫 번째 'YWCA 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5부지역별 회원YWCA 대표단을 비롯해 연합회 실행위원과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해 첫걸음을 내딛은 YWCA 정의운동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YWCA 역사와 목적문을 통해 본 YWCA 정의운동의 신학적, 시민운동론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최만자 전 연합회 실행위원이 첫 번째 발제를 하였다. YWCA 목적문의 배경이 된 WCC(세계교회협의회)의 '하나님의 선교'에서 신학적 근거를 찾았으며, YWCA 정의운동은 공공선 의식 확장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경제정의운동 전개, 생활 속 경제정의 실천, 생명정의운동,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존 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정유진 연합회 실행위원은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체'로서의 YWCA 운동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청년정의운동과 통일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완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장은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가치 전환의 요구에 YWCA 정의운동이 부응하고 있으며 YWCA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비장한 몸부림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포럼의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정의운동은 왜 필요한가를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단순히 합리주의를 벗어나는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Y의 기독교성과 합치되는 새로운 정의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명희 연합회 실행위원은 경제와 삶의 양식마저 양극화된 절망의 시대에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사는 길을 YWCA 정의운동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정의포럼은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YWCA다운 정의운동'을 기반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청소년의 존재와 재능, 지역사회 정의운동, 자연과 생명의 보전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의운동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며 정의운동 영역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문학 작품 중에서도 이런 소통 부재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다. 카프카의 『변신』이나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등은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현대판 버전으로 각색한, 멕시코 출신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 『바벨』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단절되어가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그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일 것이라고 말한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저마다 세상과 소통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생활과 일의 영역에서 소통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힘, 소통의 꿈

말과 글의 기본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고 볼 때, 소통을 돕는 말과 글을 잘 구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시나 소설들도 다 소통을 꿈꾸면서 존재하는 예술이다. 이 시대의 명문장가로 알려진 김훈 선생은 그의 에세이 『말과 사물』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의 꿈은 소통입니다. 소통의 꿈은 무엇인가. 소통은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은 세계를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 무기의 세계입니다.”

‘무기의 세계’에 비하면 턱없이 허약한 ‘말의 세계’ 안에 소통의 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꿈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는 모든 교육 활동 속에 녹아 있어야 하고, 또 학교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말과 글이다.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데 ‘말과 글’을 잘 활용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도 이제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에서 ‘공생의 가치’로 ‘소통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키워내는 공동의 책임 의식이 절실하다.



유용한 미생물(EM) 활용으로 구제역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YWCA 생명살리기 운동

● 글 | 이원걸 안동YWCA 사무총장

한국YWCA는 지난 2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태에 커다란 아픔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오염지역을 살리기 위한 EM 활용 환경 살리기 운동을 선언하고 전국 53개 회원YWCA와 함께 'EM 지원 및 교육 활동'을 올 한 해 동안 펼치고 있다. 구제역이 촉발된 안동지역은 안동YWCA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관련 학계, 극심한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 해당 지자체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청주YWCA에서는 청주시와 연계하여 구제역 매몰지인 청주시 외북동과 충북 청원군 오창읍, 북이면에 EM 발효액 20리터, 총 70통을 지원했다. 안양YWCA는 4월 1일 시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월례회에서 EM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상인회, 교회 등에서 EM 교육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EM 지원을 위해 발효액을 만들고 있으며 시도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운동을 떠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YWCA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던 다사다난한 한 해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사그라들기 전 또다시 발생한 연평도 폭격사건, 희생당한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지역'으로 명성 높고 경북도청 이전 준비로 분주한 안동에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우리의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사태 안정화를 위해 기도해온 지 수개월째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농민들과 밤낮 가리지 않고 방역작업에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로 나오신 시민들 등 동분서주한 현장은 말 그대로 참혹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인근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저희 YWCA 친환경위원장님 덕의 가축들 또한 1,300마리나 살처분하게 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봐오며 구제역 사태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YWCA가 미흡하지만 솔선수범하여 어떠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EM을 활용한 사후처리 방안을 시청에 제시하고 환경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고심하여



왔습니다. 전국 YWCA 가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며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지역에 YWCA를 창립할 때 반대하시던 분들 또한 우리 YWCA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1년 2월을 마지막으로 경북지역 1,060곳 매몰지역 중 안동지역은 615곳으로 매몰가축이 14만 마리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같은 가축을 문은 농민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2차적인 수질·토양·공기 오염이 걱정되는 우리는 2010년 12월 6일 시청 환경과에 시범으로 EM 1.8리터짜리 35병을 보내어 사후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후 안동대 생명자원학부 교수님의 자문으로 미생물의 효능을 다시 한 번 검증받고 2,520리터의 EM발효액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군청 환경과에서도 1,400리터를 지원하여 구제역 사후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유독 추웠던 겨울동안 새벽기도 후 지역 내 떡집과 식당을 돌며 손수 쌀뜨물을 수거하여 EM 발효액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남문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안동대 생명자원학부에서는 미생물 원균을 지원해 주셔서 환경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




▶ 구제역 사후처리지원_안동Y



▶ 구제역대책활동_EM만들기교육_청주Y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동YWCA는 3월 21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615곳 매몰지 중 6곳(1%)을 지정하여 한 달에 1~2회 직접 방문하여 EM발효액을 투입하여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환경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6곳을 시청 축산진흥과 방역담당자와 동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고 300리터의 EM발효액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리업체에서는 탈취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시청 행정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쌓이는 고통과 행정적으로 쌓이는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관계 기관 담당자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퍼져나감으로써 안동YWCA가 현재의 건물로 이주할 때 반대하셨던 인근 주민들께도 생활 속에서 EM을 활용하는 아파트로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더니 다음 대표자 회의 때 자리를 마련하여 논의해보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 오셨습니다. 오랜 참음으로 YWCA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안동YWCA의 지역민을 위한 생명사랑운동을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YWCA, 일본 대지진피해 돕기 거리모금운동에 나서다

● 글 | 박용옥 연합회 평화운동팀 위원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의 후쿠시마와 센다이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15미터나 되는 시커먼 쓰나미가 방죽을 넘어 모든 것을 쓸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저걸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참담한 재난이 계속 이어졌지요. 도시는 폐허가 되고 가족의 생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의 광경과 마실 물조차 귀한 대피소 이재민들의 생활 광경 등을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본 우리는 너나없이 한마음이 되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한국YWCA는 Y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저들을 위로하는 기도운동과 더불어 거리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생명과 가족, 삶을 잃고 고통 받는 일본을 위해, 여진, 원전 폭발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다이Y와 후쿠시마Y 자매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일본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세계Y의 모든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일본이 복구되어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 일본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제1차 모금 기간으로 하고 거리모금운동을 3월 한 달 매주 목요일 각 운동팀별로 맡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을 위해 연합회는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여시민의 눈길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생생한 지진 피해 사진들을 마련했고,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용기를 줄 메시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 '희망나무'도 준비했습니다. 3월 17일 12시 명동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Y연합회 회관 앞에는 강교자 회장, 이행자 후원회 이사장, 신희운 부회장, 신선 위원과 연합회 실무자들, 기자들, 그리고 명동의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먼저 지진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식을 행하고, 신선 위원이 '한국YWCA 일본 지진 피해 돕기 거리모금 캠페인' 취지문을 낭독함으로써 본격적인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동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과 관광 온 일본인들은 물

론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모금함에 사랑의 손길을 넣었고, 힘찬 격려의 메시지를 희망나무에 달았습니다. 준비한 안내문 640장이 모자랐고, 모금액도 1차 목표액 100만원을 훌쩍 넘는 121만 6,850원이 모아졌습니다. 전국 53개 회원YWCA와 9만여 명의 Y회원들은 그들이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실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6일 현재 114개국, 그리고 24개 국제기관에서 구조대 파견과 피해 지원금과 물자를 보내겠다고 신청해왔다는 것입니다. 가히 글로벌 지원운동으



▶ 모금에 감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일본인 관광객

로 확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한류 스타들을 비롯한 기업과 관공서 직원들과 종교계와 NGO 등에서 활발한 모금운동을 펼쳐 수백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묻어버리기 어려운 결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겪었던 과거사나 독도문제를 뒤로 하고 경제 대국인 일본의 엄청난 천재를 당한 이들을 내 형제가 당한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돕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길흉 간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웃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정신이 이번 운동의 바탕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대재난을 통하여 한일 관계가 새로운 선린 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YWCA연합회가 “핵은 위험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약속하는 어떠한 ‘안전성’과 ‘친환경적’이라는 광고 문구나 약속을 믿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강력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 이를 글로벌 평화운동으로 확대하는데에 Y의 자매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



▶ 희망나무에 응원메시지를 적는 외국인 여성들의 모습

밥상에서 시작되는 외침

- 구제역 파동과 채식 유행을 보며

● 글 | 이현은 연합회 생명운동팀

먹을거리,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당 육류소비량은 30년 새 3배가 되었다. 명절때나 제삿날에만 먹던 귀한 음식인 고기는 흔하디흔해졌다. 2008년 광우병 공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먹을거리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간 무역정책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번 구제역 파동은 단순히 길러서 팔고, 사먹는 것에 불과했던 식육용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같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 먹을거리 선택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 사회에 살고 있다.

구제역을 생명존중 차원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해석한 정부의 대책은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살상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청정국 지위와 연 20억 원의 육류수출을 위해 2조를 들여 살아있는 생명들을 땅속에 파묻은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채식붐이 종전의 유행과 다른 점은 단지 건강에 좋다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이미 천주교, 개신교를 비롯한 5대 종교단체 관계자가 모여 가축의 사육과 도살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단체들이 속속 채식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채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모임이 발족

하여 연구와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미국은 채식주의자가 전체 인구의 5~6%, 영국은 12~13% 정도인 반면 한국은 1%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채식주의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이지만 우리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자발적인 채식이 늘어나고, 채식고기(베지미트)와 채식식당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전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 등 유명인사들이 주창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주1회 채식운동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의 불편한 진실


이번 구제역 파동이 채식바람을 몰고 온 것은 단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고기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일로 환기된 사실은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햇빛도 바람도 들지 않는 비좁은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행해져 온 공장형 축산업의 현실이다. 실제로 1km²당 소 사육두수는 일본이 11.67마리, 호주는 3.51마리, 미국은 9.53마리인 데 비해 우리는 31마리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고기를 위해 어찌면 종의 개량과 공장화된 축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많은 고기를 생산해내기 위해 생물의 종을 계량하여 단순화시키

고, 밀집 사육하는 현대적인 축산업은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 이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하나의 질병이 발병함으로써 인해 밀집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가축이 한꺼번에 감염될 재앙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식생활로

축산농가의 단기적인 이익보호를 위해 고기소비의 증가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전 세계의 소들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이른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 매년 전 세계 가축이 뿜는 메탄가스는 1억 톤으로 전체 메탄가스 생산량의 15~20%를 차지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80%, 대두의 90%를 가축들이 먹는다. 가축에게 사람이 먹는 곡물을 먹여 키우는 행위는 지방량을 늘려 맛을 좋게 하기 위함이지 생태적으로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이다. 고기 1파운드를 늘리는 데 드는 사료의 양은 돼지는 7.3파운드, 가금류는 3.5파운드, 소는 20파운드나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소비되는 곡물들만이라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지구상에 사는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공장형 축산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갖가지 병에 걸리게 되고 이를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 물류와 도축비용,

가공비용, 사회적 의료비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장형 축산은 결코 효율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다.

2011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나탈리 포트만은 인터뷰에서 자발적인 채식주의자임을 밝히면서 식사는 그저 하루 세 번 먹는 끼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하루 세 번 자신의 의지를 주창하는 행위'라고 한 바 있다. YWCA 역시 올해 육식을 '다운(down)'하자는 운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육류를 먹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양적 성장을 위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팽창해 온 인류의 축산 행태를 반성하자는 생명운동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힘으로 공장형 축산을 생명존중 축산으로 바꾸자는 소비자운동이다. 우리의 끼니를 통해 생명이 서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픈 YWCA의 소망이다. 무조건 크고, 빠르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크고, 빠르고, 많은 먹을거리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역사상 없던 새로운 질병들과 비만뿐이다.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산업화와 기계화가 아닌 원래 저들이 살았던 방식, 곧 자연의 방식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업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 결혼이민여성 백일장 심사 후 수상하는 모습



▶ 결혼이민여성 백일장 심사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맨오른쪽이 김형규 감사

믿음과 사랑이 샘솟는 우물

● 글 | 김형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대구YWCA 감사

어제 밤에 포근한 봄비가 내려서인지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잎이 움트기 시작한다. 올해 봄은 유난히도 늦게 찾아오는가 보다. 예년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린 때문일까.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듯하다. 털옷 주머니 속에 하얀 얼굴 내민 목련화는 이제 활짝 꽃망을 터뜨리고, 산수유꽃이 노랗게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내가 대구YWCA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4년 따뜻한 봄이었다. 경북대학교에 현직으로 있을 때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YWCA에 대한 깊은 이해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모인 여성들의 사회봉사 단체라는 정도의 얄팍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연구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대구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 계셨던 윤귀분 관장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대구YWCA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수립에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려고 한다고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학문 연구에 바빴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수락하였다. 현

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준회원이 되어 감사직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보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YWCA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역대 회장님들과 이사님들, 사무총장님과 각 부서의 기관장님, 직원들과 회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의욕적으로 발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그 결실의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희와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건축기금을 마련하여 본부의 건물을 대구 앞산 밑에 아담하게 마련하여 이전하였고, 옛 본부건물은 산뜻하게 리모델링하여 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 도심부에 위치하고 지하철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여 주민들이 찾아들기에 편리하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성차별의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과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물이었다. 가정, 학교, 직장, 각종 사회를 표집 대상으로 정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이 내용으로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하였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어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조그마한 봉사의 씨앗이 수십 배의 결실을 맺을 때 얻은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슬로건을 걸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YWCA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해 본다.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쁜 계란 바구니가 생각한다. YWCA는 운영위원인 나에게 부활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 부활절에 연구실로 성경 말씀이 담긴 카드와 함께 계란 바구니를 보내오곤 했다. 여성의 섬세한 배려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를 통하여 나는 부활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YWCA 속의 여성을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 같은 여성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여성의 강인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보았고, 여성의 섬세한 재능과 아리따운 숨씨를 보게 되었다. 검소하며 절제하는 생활태도와 맑은 샘물 같은 순수함도 엿보게 되었다. 은근과 끈기가 있는 강인한 여성의 정신도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YWCA라는 기관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과의 차이점도 발견하게 되었고 조직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단체로서 그들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눈다. 험벗고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와 희생을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다. 주님의 딸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며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을 베푼다.

나는 YWCA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성경을 더욱 읽게 되었고 신앙의 새싹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신앙이 마음속으로 흡수되고 환희가 마음속에 용솟음 쳐움을 느끼게 되었다.

요즘 나는 여성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곤 한다. 어머니의 그림자를 통하여 모성애를 가진 여성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치맛자락을 통하여 애정을 가진 여성을 느꼈으며, YWCA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을 깨닫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란 성경 말씀이 생각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꽃처럼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를 날리는 YWCA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지역과 이웃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기관, 변화와 창조의 새 옷을 입고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이것이 내가 Y에 바치는 연가이다. 

HAPPY BIRTHDAY!

한국YWCA 창립 89주년 축하 메시지

전국에서 답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감사와 기쁨으로 심습니다



강릉YWCA

- ★ 와~ 축하 축하해요~~^^ 긴 역사만큼 더욱더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는 YWCA!! 파이팅!!

대구YWCA

- ★ 팔십구 년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실천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해 온 한국YWCA를 년(연)모합니다. 진심으로! ^^* - 박선 사무총장
- ★ 축하, 축하! 구약성경에 무드셀라의 나이를 떠올리며 989세!!! 한국 Y 89주년을 파릇파릇 연한 싹이 돋아나는 새봄 같은 어린 나이로 시작하네요. - 임성희 이사
- ★ 와우! 89주년.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89주년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한국Y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 이영자 간사
- ★ YWCA처럼 청소년을 위해, 여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기관이 또 있을까요? - 김세형 간사
- ★ 있는 듯 없는 듯, 알게 모르게 어느덧 구순의 나이가 되었군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오신 한국YWCA를 축복합니다. - 강은희 간사
- ★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쪽쪽~ 번성하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여성단체로 세워가시길

대전YWCA

- ★ 여성에게 희망을, 가족에게 사랑을, 사회에 빛이 되어온 한국YWCA! 영원하리라 - 임송은 이사
- ★ 따스한 생명의 바람 일으키며 춤추는 나비처럼 나래 펴는 젊은 꿈들! 우리는 한국YWCA! - 정연봉 이사
- ★ 푸른 혁명! 젊은 현실! 여든아홉 해 생명의 바람이 분다, 이 땅 모두가 살아나고 말겠다. - 박하현 위원
- ★ "이제는 한국YWCA입니다." 꿈을 키우고 이루어나가는 한국YWCA 화이팅! - 차영희 회장

부산YWCA

- ★ 한국Y 89주년! 함께 기뻐합니다. 젊은 생각과 열정으로 언제나 회원과 함께하는 Y가 되시길!! 실천하는 젊음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 소망합니다. Fighting! - 김세은 간사
- ★ 예전에는 '여성' 하면 연약함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섬세한 리더십, 아름다운 자신감이란 단어가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역시 YWCA의 공헌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봅니다. 축하해요! - 박소망 간사

서울YWCA

- ★ 오랜 역사 속에서 선인들의 뜻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종미 정책기획국 부장
-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Y 되세요. - 박서영 홍보출판부 간사
- ★ 한국Y 89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하시길 지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박혜리 국제협력부 간사

충주YWCA

- ★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 최영옥 가정폭력상담소장
- ★ 한국YWCA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으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더욱 청청해질 것입니다. - 김복화 상담원
- ★ 외롭고 상처 있는 아픈 자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89년을 축하하며 평화를 일구어 가는 YWCA가 되소서. - 정호남 회장
- ★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정신을 가지고 89년을 걸어온 한국YWCA를 축하하며 더불어 한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배영란 사무총장

수원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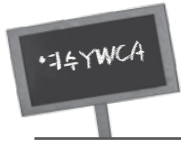
- ★ 우리 서로에게 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나눔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더

인동YWCA

- ★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YWCA가 생명의 바람으로 이어가며, 우리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 신윤경 직전 회장
- ★ 인간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복음과 사명의 빛을 수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명자 전 회장
- ★ 89년을 여성발전과 환경운동에 앞장선 우리 YWCA가 앞으로도 여성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주며 더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권순희 전 회장
- ★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영혼을 흔드는 간절함과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소명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백종례 회장
- ★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 89년 역사동안 이어짐에 감사드리며, 지역 곳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여 YWCA를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이원걸 사무총장
- ★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89년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 김희정 부장
- ★ 더욱 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 계획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 엘레나 다문화한글교실 학생
- ★ 모든 이들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89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헌신적인 기도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윤점숙 자원봉사자

- 육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 하은자 명예이사
- ★ 한국Y 안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 안혜란 간사

- 뜻을 소중히 담아내는 푸르디푸른 한국Y가 되길 소원합니다.
- ★ 한국의 흥망성쇠 역사 속에 여성의 힘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선도해온 세월이 벌써 89년이 되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자긍심이 되어 더욱 발전적으로 일하길 바라며, 정말 축하합니다.



- ★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89주년을 맞은 한국YWCA!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 ★ 사랑하는 한국YWCA가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 ★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에 뿌리내린 YWCA가 더 깊게 자리 잡고 번창하길 기도합니다.



- ★ YWCA창립 89주년 축하드립니다.♥ - 진남희 이사
- ★ 89세 YWCA여 영원하라~ - 이수향 이사
- ★ 한국Y의 89회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의 선구자로서의 대활약 기대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성여선 청소년위원회 위원
- ★ YWCA 89주년을 맞아 함께 기쁨 나누어요.♥ 축하합니다. - 김순현 부회장



- ★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관되게 사회정의운동을 펼쳐온 YWCA! 89년의 긴긴 세월이 밀거름되어 주님 빛을 구석구석까지 밝히는 멋진 운동체로 더욱 커가기를 기원합니다. - 신경인 회장
- ★ 89년이란 긴 역사를 주님 이름 가운데서 한국사회 곳곳에 봉사정신을 불어넣어준 한국YWCA가 자랑스럽습니다. - 임강자 홍보출판위원장
- ★ 평화를 만드는 힘은 오직 섬김, 나눔, 살림의 삶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희망입니다. - 김정열 직전회장
- ★ YWCA 정체성을 살리는 젊음, 여성, 예수님제자, 함께하는 우리

-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 백진주 사무총장
- ★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에서, 뒤에서 선한 역할 감당하는 YWCA 모습 변치 않길 기도합니다. - 강지혜 홍보출판위원회 간사
 - ★ 잠재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과 사회참여 확장을 지원하는 YWCA,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한국YWCA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부강 회원
 - ★ 앞으로도 이 땅의 단단한 뿌리가 되는 한국YWCA가 되길 기도합니다. - 양승희 회원
 - ★ 나눔과 섬김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온기를 전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YWCA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오수연 회원
 - ★ 그간 전국 55개의 YWCA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고를 알기에 89주년의 기념이 더욱 뜻 깊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변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지숙 회원
 - ★ 아자아자, 파이팅! 세상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웃음의 향기 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 안술선 회원



- ★ 살림, 돌봄, 나눔의 평화스러움이 한국Y를 통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들연 회장
- ★ 우리가 89년 동안 곳곳이 지켜온 Y정신과 힘이 이젠 세계의 디딤돌입니다. - 김경애 부회장
- ★ 한국YWCA의 꿈, 힘, 생명!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원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문옥자 부회장
- ★ 앗, 한국Y가 벌써 89살이나 되었네요! 정말 멋지게 보냈어요. YWCA 더 힘내서~ 아자 아자! - 이혜영 '다사모' 회장
- ★ 봉사를 통해 진주Y의 활동과 운동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Y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 이영희 '다사랑' 회장

- ★ 더 좋은 활동과 사회사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 심정은 진주Y팀협의회 회장
- ★ 여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앞장서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 류다혜 대학Y '꾸미망' 회장
- ★ 이 땅에 89년을 살아온 한국YWCA!! 앞으로도 젊음(=Y)으로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 강현미 근로복지부 팀장
- ★ 향기로운 여성, 세상을 살리는 여성!! YWCA가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 최예진 청소년부 간사
- ★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멋진 일도 하고, 회의도 하는 YWCA가 좋아요. - 김건희 어린이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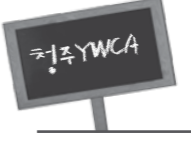


- ★ 우리 곁에 오직 한분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YWCA 89주년을 축하드리며 가슴속 깊이 사랑합니다. - 조영자 회장
- ★ 암울했던 시대 민족의 소망을 안고 불 밝힌 지 어언 89년의 세월,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89주년을 축하하면서 YWCA 미래의 꿈이 훌쩍 되어 생명이 움트는 모든 곳에 멀리멀리 퍼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장복자 초대회장
- ★ 우리 YWCA 앞날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되고 평화 사도가 되소서. - 박병욱 증경회장
- ★ 이 사회를 위해 비쳐주었던 등불 같은 YWCA여 사랑과 봉사로서 그 빛이 더욱더 퍼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 지은경 부회장
- ★ 잉태의 기쁨과 출산의 감격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한국YWCA 89돌의 행복함을 함께 나누며 축하합니다. - 김선화 사무총장



- ★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Y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김태년 회장

- ★ 팔팔한 YWCA! 구구절절 옳은 YWCA! 연수대로 성숙한 YWCA! - 서선하 사무총장
- ★ 여성의 선구자 YWCA!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더~높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 여성간담전화 김명숙 센터장
- ★ 사랑을 받아 기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사랑을 주었음으로 행복한 Y인이 되고 싶습니다! -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선호정 간사
- ★ 89주년의 Y는 오직 Y를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유현옥 팀장
- ★ The 89 anniversary is only ① DAY. But YWCA's for Whole Life! - 김상미 간사
- ★ 축하합니다! - 성인문해교실 운영속 강사
- ★ YWCA 89주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 쉼터 전소연 간사
- ★ YWCA에 평강과 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 폼터지역아동센터 박미영 센터장



- ★ 회원Y와 함께 더 오래 더 멀리 같이 걸어주세요! -박설아 간사
- ★ 사랑해요 YWCA - 김유정 부장
- ★ 100년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는 귀한 89주년 창립기념이 되길 바라요. - 정미향 간사
- ★ 지난 89년 동안 한국 땅에 YWCA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해피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는 모든 Y인들, 존경하고 사랑하며, 8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전선희 자원봉사자
- ★ YWCA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아지길 기도합니다. - 김나영 자원봉사자
- ★ 89년의 긴 역사 속에 한국 와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신영화 회장
- ★ 늘 앞서서 이끌어주는 YWCA!! 주님의 사랑 안에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 믿어요, 축하합니다. - 신보미 대학부 회원

추문으로 떠도는 '춘향이'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 글 | 이강보미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많은 성자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스스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지금까지 두루두루 남겨두었으리라. 자신이 가진 멋지고 성스러운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가 모두 성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하게도 인간들 사이를 떠도는 이야기는 성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옳아매는 이야기가 많다. 여성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여성의 숨통을 막고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현대를 사는 춘향이들 이야기이다. 21세기 밝은 세상에 춘향이들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나고 하겠지만, 우리 귀에 들려온 스캔들 무더기는 수백 년 전에 변학도 앞에서 잠시라도 상황을 파악하며 고민을 했을 춘향전의 한 장면으로 밀어 넣

는다.

춘향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故 장자연'. 한 젊은 배우가 자살을 하고 소위 '장자연 리스트'라는 것이 떠올랐다. 장자연 리스트는 자살의 원인이 소위 사장님 접대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고백을 남겼고, 이름만 대면 아는 사장님들이 들어가 있었다. 정작 두려운 것은 이 접대 리스트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도 놀랍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조선 시대에는 변학도 같은 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젊은 여성의 몸을 탐하였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조선시대는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반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도 배워서 박사도 교수도 될 수 있고, 투표할 수도 있는데다가 심지어 국무총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수청이 웬 말인가?


21세기 선진 국가에서 아직도 권력자의 수청을 들라는 추문이 먹히는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에 신분 족쇄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면 요즘 여성들이 복종하는 이유가 조금 다를 뿐이다. 출세를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젊고 예쁜 몸으로 권력 있는 남성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목소리는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젊은이들의 조급함을 이용하여 여성에게는 젊은 몸이 재산이라고 구슬리고 기를 기 낀 권력과 지푸 손을 잡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영악하게 잘 알아들은 여성은 행복을 보장받는가? 권력을 이용하여 조금 더럽더라도 세상을 폄나게 한 번 살아보려는 주인공들, 바로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과 불륜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명문대 교수 스캔들, 그리고 신정아는 모두 그 당사자가 될 것이다. 여성에게 권력의 유혹이 만연한 사회에서 변학도를 선택했고 심지어 변학도를 이용하겠다고 자신한 여성도 있다. 심지어 변학도보다 더 변학도스러운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한 그녀들은 행복한가? 일생에 한 번은 금침에서 자고 넓은 집을 갖고 큰 차를 타고 권력의 단맛을 보았으니 나라에 해를 끼치든, 자신이 몸담았던 대학을 우스운 꼴로 만들어 해를 끼치든 괜찮은가? 아닐 것이다. 어느 날 모래 위에 갑자기 쌓아올렸던 탑처럼 부러움의 시선은 빈정거림과 비웃음으로 전락하고,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렇다고 그런 모든 권력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떠올리면 희망만 가득하지도 꿈결 같지도 않다. 우리를 겁주는 또 다른 이름들, 권력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다른 길을 선택한 여성들도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많다. 거기에는 두려운 빈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였으나 행복병자로 죽은 나혜석과 최근 굶어죽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

은도 떠오른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성이 한 발 내딛기를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이야기들의 집합체이다. 여기엔 권력을 미끼삼아 욕망을 더럽게 충족하려는 변학도들의 카르텔이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이런 거대한 힘이 스스로 멈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두고만 본다면 더 많은 우리의 딸들이 현실의 부조리에 고통 받으리라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딸들까지 돈과 권력의 놀음으로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진 않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권력과 정치는 우리의 앞에 놓인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권력이 깊이 성찰되어야 한다. 권력은 여러 사람의 권리를 모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모아주는 힘이다. 그러기에 권력의 허울을 갈망하기를 그치고 쉽게 얻은 부당한 거래로 얻은 권력은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안목과 신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권력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눈이 갖춰질 수 있도록 권력이 적절하게 감시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서야 딸들이 접하는 세상과 딸들이 선택하는 질문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야 "여성이 정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 깨끗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도 않고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기저기로 퍼지기도 할 것이다. 지금도 분명 많은 여성들이 곳곳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여성들이 권력을 성찰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딸들의 미래를 꽃피울 준비를 함께할 때이다. 

한국 포크음악의 즐거운 재발견

-YWCA 청개구리와 세시봉

● 글 | 김지숙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가

얼마 전 자주 가는 음원사이트에서 6,70년대 포크송이 10위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직전에 방송된 MBC '놀러와-세시봉 편'의 영향이었다. 아이돌의 댄스음악으로 가득했던 차트에 신선한 바람이 분 것 같아서 반가웠다.

젊은이들의 돌파구, 음악감상실

'놀러와'에 등장한 세시봉 4인방(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불러일으킨 한국의 6,70년대 포크 열풍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놀러와'에서는 세시봉 콘서트를 열어 다시 한 번 시청자들에게 그 시절 포크음악을 선보였다. 세시봉 콘서트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AGB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의하면 방송 시청률은 16.9%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세시봉은 종로 무교동에 있던 한 음악감상실이었다. '매우 좋다'라는 프랑스어인 'C'est si bon'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었다.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던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 아래서 젊은이들에게는 비상구가 필요했다. 그때 세시봉, 쉐부르, 나슈빌, YWCA 청개구리 등 명동

과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음악감상실이 젊은이들의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영화 '고고70'을 보면, 자유롭게 놀고 싶은 젊은이들이 연행될 것을 감수하고도 '자유!'를 외치며 밤새도록 고고춤을 추고 노는 장면이 있었다. 자정의 사이렌 소리를 피해 고고장에 숨어들던 젊은이들, 그 시절의 음악은 저항의 의미를 뿜 수밖에 없었다.

YWCA 청개구리 역시 청년문화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YWCA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뜰에 있던 단층 직원식당을 개조해서 청개구리의 집을 만들었다. 군사독재 정권 하에 있던 1970년 6월 29일의 일이었다. 청개구리의 집의 입구에 붙어있던 부제는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의 집'이었다.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모여와 아무 곳이나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놀았다. 그리고 가난하고 비좁으나마 무대가 간절했던 아마추어 대학생 뮤지션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김민기, 양희은, 서유석, 박인희, 박의정,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의 대학생 포크가수들이 활동했다. 이번 세시봉


열풍은 노래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그 시절, 포크음악의 물결을 재발견하는 계기였다.

아직도 유효한 아날로그 음악의 감동

무엇보다도 세시봉 열풍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날로그 음악이 선사하는 감동' 덕분이었다. '노래는 기계가 부르고 사람이 피치링을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기계음이 많이 들어간 노래에 물린 요즘, 통기타와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의 힘을 선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6,70년대 음악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였다. 그동안 공중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는 '가요무대', '콘서트7080', '열린 음악회' 정도였는데 모처럼 향수를 일으키는 무대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회상할 과거를 가진 중장년층만 포크송에 열광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세시봉을 몰랐던 젊은 세대로 '우리 나라에 저렇게 좋은 음악이 있었다니!'라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옛 음악을 찾아듣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옛 포크음악의

감수성은 젊은 세대에도 '떡힌다'는 것이다. 요즘 늘어난 젊은 층의 통기타 소비, 댄스음악으로 점철된 음원차트에 통기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보여주었다.

사실 포크음악은 우리 생활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즘도 대학 축제나 각종 시위에서 '아침이슬'을 부르고 있다. 시대를 뛰어넘는 감수성과 노래에서 묻어나는 젊은이들의 저항정신이 아직도 유효한 까닭이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포크음악의 붐이 과거의 전통을 회상하고 명곡을 재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장기하와 얼굴들 같은 그룹이 인기를 끌었고 여러 인디밴드가 포크의 정신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각종 매체에서의 영향력은 약한 수준이었다. 가수 장기하는 한 인터뷰에서 "산울림, 배철수, 송창식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고 깊이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청개구리의 집과 세시봉에서 발산했던 젊은이들의 꿈과 갈증만큼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 포크음악 열풍이 '아침이슬'을 잇는 한국의 2011년산 포크음악 탄생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Book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살아남은 동물들의 비밀)

● 글 | 최형선 ● 부키

현재 한국YWCA연합회 생명운동팀장으로 땅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 정의운동에 앞장서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 저자가 최근 펴낸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이 책은 지구 생태계 대표 동물들의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흔히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은 늘 그 곳에 있어온 듯하다. 고래는 바다에, 낙타는 사막에, 치타는 '100미터, 3초'라는 최고 기록으로만 기억한다. 그래서 고래가 해안가에 살던 발굽동물이었고, 치타는 오직 생존을 위해 온몸을 달리기 모드로 바꿨다는 걸 놓치고 만다. 수천만 년 전부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이들의 생명력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돕는 순환적 협력으로 드러난다. 자신과 남이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저마다 길을 나서 최선의 풍요로움을 일궈낸다. 이 책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지구 생태계 전역으로 떠나는 시공간 여행이다.

세계는 왜 싸우는가?

● 글 | 김영미 ● 추수밭

2006년 제4회 한국YWCA 여성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인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PD가 분쟁의 진실을 '세계는 왜 싸우는가?'에 담았다. 소말리아는 왜 해적의 나라가 되었나? 자살폭탄 테러는 왜 일어나는가? 가난한 나라는 왜 내전에 빠져드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지면과 텔레비전 뉴스를 장식하는 전쟁, 테러, 분쟁 소식. 10여 년 넘게 세계 분쟁지역을 발로 뛰며 취재해온 저자가 국제관계와 종교, 민족,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세계 분쟁의 실상을 아들에게 들려주듯 쉽게 명확하게 풀어나간다. 무엇보다 저자가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만난 여성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분쟁의 참상으로 가슴을 섬뜩하게 하고, 때로는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마음 열기 (최일도 목사가 시편에서 건져올린 삶의 지혜)

● 글 | 최일도 ● 랜덤하우스

1988년, 라면과 냄비 하나로 도시빈민 선교를 시작한 '밥퍼' 최일도 목사. 그 후 2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세상과 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감동을 전해준 그가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나의 마음'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우리 곁을 찾았다. 이 책은 2003년에 출간한 '마음 열기'의 개정판으로 그동안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많아 새로운 이야기와 사건을 담아 재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마음의 병이 깊어 늘 불안하고 문득 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일도 목사가 보내는 마음의 편지다.

평생건강 코리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대한민국은 건강 선진국입니다



‘산소 내뿜는’ 흡침대 봄세일!

“불면증, 허리추심, 늘 피곤한분”

세계 제1의 침대
특허왕! 미국 FDA 등록

침실에 수맥이 흐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유없이 허리가 쭈시고 감기가 자주든다. 성격
이 민감해져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된다. 가
족관계가 충돌이 잦으며 더욱이 취침시 꿈을
많이 꾸어 악몽에 시달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 하다. 무릎이 쭈신다. 학생들은
학습장애가 되어 성적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수맥이 흐르면 혈관을 수맥파가 압박을 가하
기 때문이다.

특히 수맥이 흐르면 식욕이 떨어지며 신혼부
부의 불임증과 기형아를 낳을수도 있고 집안
에 우환이 많이 생긴다. 팔 다리가 부자연 스
럽고 두들겨 맞은 듯한 몸상태가 된다.



편안한 잠을 위해 수맥차단 사실을 증명하는 李京馥 대표

김수환 추기경 침소,
윤보선 대통령 생가 탐사

20여년 연구한 수맥 흡 침대 이경복 사장은
현양대학에서 수맥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였
고, 각종 특허류가 100여종이며 그 결과 산업훈
장과 과학기술부 장관상등 수많은 공적을 쌓았
다. 또한 이러한 공로로 김수환 추기경계 감사
패를 받기도 하였다.

이미 독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입증되어 대학
에서도 수맥 강좌를 연다. 침실, 공부방, 식탁아
래 등은 필히 수맥검사를 하여 차단하거나 피해
야만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다. 수맥 침대는 산
소 내뿜는 침대이며 참숯으로 만들어져 친환경
으로 공기 정화 침대이다.

성적이 쑥쑥
공장 직판 최대 전시장

수맥 차단 특허, 전자파 차단 특허, 공기정화 특
허 등 품질면 에서 세계 제1의 특허 왕이다.
가령 가슴 부위로 수맥이 흐르면 혈관을 압박하
여 감기가 잦고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다.

어버이 선물 세일
흔수 용품으로 인기 폭발

잠실에 제2롯데 공장과 명동성당앞에 본사 지역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회사 직영으
로 타사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매 하고 있다.



수맥흡침대 미국FDA인증서

이경복 사장은 김수환 추기경 침소와 윤보선 대
통령 생가 수맥 검사 등 전국 5000곳을 탐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ww.smbed.co.kr

잠실공장 1588-5335
명동성당앞 YWCA 본관

봄비가 축축이 내린다.
아이가 비를 보며 말한다.



엄마
비는 참 고맙지.
나무와 풀들을
무럭 무럭 자라게 해주고
비야 고맙다~

엄마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무섭고
땅에서 나오는 물도 무섭구나
그걸 차마 네게
말할 수도 없다!
흐렁~미안하다.



2011년 4월
장화현실

결혼이민여성의 지원과 자립을 통한 국제적 운동 펼쳐야 할 때

글 | 연합회 세계대회 준비팀

전 세계의 3%에 해당하는 1억7천5백만 명이 자신이 출생한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노동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주의 여성화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취업, 결혼 등 이주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 1만여 건이었던 국제결혼이 2008년에는 3만 6천여 건으로 증가, 그중에서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경우가 78%에 이른다. 특히 결혼을 통한 이민여성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14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YWCA는 국제중개를 통해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2007년에는 389명, 2008년에는 767명, 2009년에는 600여 명 등 총 1,700명의 결혼이민여성이 한국YWCA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취업페스티벌-네일아트 무료체험



▶ 스승의날 행사-수원YWCA-직접 케이션 만드는 결혼이민여성

첫해에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요리, 사진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익히는 일에 집중했다. 다음해에는 가족소통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다. 결혼이민여성 혼자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없는 일이다. 남편, 시댁 식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 간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YWCA는 이들의 모임을 개인

적인 친목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연결했는데 기름으로 오염되어 전국가적 문제를 일으킨 태안반도의 해양생태계 복구운동에 참여했으며 마을의 독거노인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기도 했다.

2008년 베트남, 중국, 몽골 등 3개 지역에 국제결혼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 중개 과정을 이해하고 경로를 추적해봄으로써 국제결혼 중개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해 1년 동안 필리핀, 중국, 베트남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할 때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이 무엇인지 연구를 실시하고, 7개 직종에 대해 직업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20개 지역, 300여 명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YWCA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YWCA도 오래전부터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권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특히 각국 여성조직과의 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의 관심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여성회원들이 모인 한·일 YWCA청소년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과 조화롭게 살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05년부터 한·일 청소년협의회에서는 글로벌시대의 이주 여성의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지를 배웠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YWCA가 연대를 통해 어떻게 지구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지역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이다.



▶ 세족식을 통해 부부 소통과 이해를 다지는 결혼이민여성 가족

이주여성문제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노동권,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권리, 인종차별, 성차별, 여성역량 강화 등 여성문제의 모든 측면이 결합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 문제는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진 전(全) 지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YWCA가 해온 이주여성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이 자립하여 역사회에서 뿌리박고 조화를 이루는 같은 시민으로 살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간의 이주여성 프로그램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의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통합과 지역사회 연대를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는 이를 통해 많은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자신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많은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뉴욕 3주, 전 세계 여성과 손잡은 한국을 꿈꾸다

● 글 | 이슬비 연합회 청년운동팀

브로드웨이와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소호, 센트럴 파크까지! 경제, 문화, 패션, 관광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 있으니 바로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해튼이다. 그러나 이것이 뉴욕의 전부일까. 나의 '뉴욕 3주'는 여성지위위원회, 퀸즈 YWCA, 세계 여성의 날, 브루클린YWCA 등 '여성'이란 말을 빼곤 정리할 수가 없는 경험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YWCA 간사로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뉴욕 경험이다.

세계 여성이 머리를 맞대다

-2월 22일~3월 4일

뉴욕에서의 첫 일정은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뉴욕의 맨해튼 동쪽 맨 끝자락에는 유엔이 위치하고 있다. 유엔 입구에 도착하니 엽서에서 자주 보던 낯익은 광경이 나를 맞이했다. 세계에서 온 여성들이 유엔 입구에 줄을 서 있었다. 필릭스는 국기와, 뒤로 보이는 동강(East River), 뜨거운 아침햇살과 상쾌한 바람. 그리고 그 앞에서 있는 나! 이 자리에서 '젠더 평등'을 위해 여성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찼다. "야호!"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세계YWCA 대표단이였다. 한국YWCA를 반갑게 맞이해준 헨드리카 세계YWCA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힘차게 스카프를 흔드는 이슬비 간사.

사무총장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국가별 회의와 NGO 회의가 동시에 이뤄진다. 올해는 여성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 동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과 여아의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 접근이라는 큰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NGO 회의에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300여 개 NGO 단체의 이름으로, 1,400명 가량이 참가했다. 나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심,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퀸즈YWCA "Many languages, One voice"

-2월 28일~3월 11일

퀸즈YWCA 훈련을 위해 아예 퀸즈에 숙소를 잡았다. 퀸즈에는 '금강산', '삼수갑산' 등 이제는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수한 음식점 간판 이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곳이 정말 뉴욕이란 말인가. 중국인, 한국인, 남미계통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퀸즈는 맨해튼 중심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흥인숙이라는 한국 여성이 한국 이민자 여성을 위해 세운 퀸즈YWCA가 있다. 초창기에는 한인YWCA라고도 불렸던 이곳이 미국YWCA에 소속된 독립단체라는 것은 독특한 이력이자, 미국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곳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YWCA에도 큰 귀감을 주는 곳이다.

다문화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문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떤 지원보다도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오가지만 하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곳이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여성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YWCA를 세우는 날을 그려본다.

브루클린YWCA, 거주(쉼터) 프로그램을 보다!

세계YWCA 대표단과 함께 브루클린YWCA를 탐방했다. 브루클린YWCA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 간판이나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소를 물어 물어 찾아 간 곳은 깨끗한 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커다란 건물이었다. 일단 그 크기에서 으리으리함을 느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200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를 제공하는 하우스(housing) 서비스는 브루클린YWC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정 문제로 인해 혼자 살 곳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아늑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 안을 들여다보면 전망 좋은 넓은 창과




▶ 3월 1일 뉴욕이민자의 날, 알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에서 퀸즈YWCA 회원과 함께.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자.

깨끗한 부엌, 텔레비전과 아늑한 소파 등이 매우 인상적이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편리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손녀딸의 사진을 들고 자랑하는 할머니를 볼 땐, 괜히 마음이 찡해 오는 걸 느꼈다. 브루클린YWCA가 하우스 서비스를 받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폭력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다!

-3월 8일

올해는 특별히 뉴욕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다. 그것도 100주년 기념의 날이다. 조용히 지나갈 리 없었다. 당일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와,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면서 달려갔다. 이날을 온몸으로 즐기리라! 100명 이상의 무리가 함께 소리치며 신나게 다리를 건넜다. 눈이 마주치는 대로 인사를 나눴고, 결국 한 미국여성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리를 건넜다. 신나게 떠들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즐거워했다. 헤어질 때 짚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나의 어머니와 동년배의 어른이었다.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린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주었다. 우린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여성이라는 이름의 유대감 아닐까.

뉴욕은 볼거리가 참 많은 도시다. 경제적 번영, 문화의 중심 도시 안에서 YWCA의 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함 그 이면이다. 여성의 평등과 인권 문제, 폭력으로 부터의 여성 보호와 여성이 살기 안전한 세상, 그리고 이민자 여성 지원 등 다양한 여성 문제를 위해 고민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남성들의 폭력 피해를 받는 다문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한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뉴욕을 둘러본 후 내가 가진 소명이다. 

4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p>연합회·회원 월례아침기도회 고양 레인보우브릿지 지역복지봉사자 교육(37) 대구 무지개합상, 드림장식 운영회의 대전 결혼이민여성 테마특강 부산 민들레 공부방(매주 월~금) 안동 생활체조 교실 양산 EM 토크발 구구기(격주 금) 의정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교육 포항 민들레 한글교실 초급(매주 목, 금)</p> <p style="text-align: right;">1</p>	<p>광주·창원 Y-틴 인준식 부산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함박웃음6 서울 문정중 도래상담 양산 어린이합창단(매주 토) 여수 부모교육 캠페인 Y-틴 봉사활동 원주 사랑의 우체국 발대식 인천 들불과 살림 아우회 전주 청소년 봉사단 '도시' 발대식 YP 학생순찰대 활동 제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의 삶터 내담자 미술치료</p> <p style="text-align: right;">2</p>
<p>포항 민들레 한글교실 중급(매주 월, 수)</p> <p style="text-align: right;">3</p>	<p>광명 인형극 자원지도자 교육(매주 월, 화) 광주 환경미화원 취업능력향상교육(~29일) 남원 산모돌보미 바우처사업단 발대식 대구 달서구 청소년쉼터 직업교육(~25일) 부산 장애청소년 방과후교실-음악치료(매주 월) 안동 다문화 한글교실, 자조모임(Flower Girls) 제주 집단상담 인소싱 '취업희망 프로그램' 개강 조치원 씽크머니 경제교육 춘천 아이돌보미 신규자 교육(월~금) 파주 한글교실, 공부방(매주 월~금)</p> <p style="text-align: right;">4</p>	<p>강릉 사랑의 바이올린 부모 교육 남양주 조순가정 반찬 나누기(매주 화) 마산 여성인권지킴이 양성교육 개강 다문화 요리교실(매주 화) 부산 남성독거노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산 민들레 아기영어학교(매주 화, 목) 안양 신임실무자 교육 양산 동요학교, 도전 한글교실 여수 이사·위원 연수 충주 1사하천 구구기 식목행사 평택 씽크머니 교육·현판식·송일초</p> <p style="text-align: right;">5</p>	<p>연합회 민들레넷 실무자 교육 대전 EM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동해 찾아가는 취업창구(~7일) 부산 소비자모니터 월례회의 속초 씽크머니 학교장 간담회 울산 중국어교실 제주 민들레학교 수영교실 조치원 의류바자회(~8일) 진주 씽크머니 협력학교 현판식</p> <p style="text-align: right;">6</p>	<p>연합회 지역아동센터 교사연수(~9일) 고양 행복한 가족 코칭 대전 상담소 강사 모임 동해 실버스쿨(매주 목) 서귀포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협약식 수원 상반기 이사연수(~8일) 안동 요요클럽 활동 양산 다문화 한글교실·한국문화생활체험(매주 목) 익산 한글교실 초급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p> <p style="text-align: right;">7</p>	<p>광명 청소년금융교실 스테디모임 광주 이사·위원 연수 대전 결혼이민여성 테마특강 의정부 산모·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식 제주 여성·아동폭력 추방 및 예방 캠페인 대전 보육센터 가정역량강화 나들이 진주 살림돌보미 월례회 천안 환경구연동화 전문양성과정 (3월 22일~)</p> <p style="text-align: right;">8</p>	<p>강릉·안양 Y-틴 인준식 고양 가족봉사단 농촌체험 김해 가족봉사동아리 농곡환경지킴이 활동 논산 청소년 웃음치료 교육 및 봉사활동 대구 청소년민들레 한글, 초아 2기 정기모임 사천 사천시 주민복지 박람회 부스운영(~11일) 서귀포 청소년 여름 등반/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스쿨 서울 대학생 환경·소비자활동가 양성교육 인천 나눔장터 개장식 청주 아이쿱청주Y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Y-틴·대학Y 일일 농촌봉사활동</p> <p style="text-align: right;">9</p>
<p>여수 찾아가는 상담 아웃리치 활동</p> <p style="text-align: right;">10</p>	<p>강릉 회원 발대식 광명 산모·아이돌보미 교육 김해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개강 대구 회원증모 기도회(~15일), 달서자활 생산품 알뜰바자회(~15일) 서귀포 집단상담 프로그램 희망을 집(job)아라 7기(~15일) 서울 중국알기 연구모임 청주 들불과 살림 모범 돌보미 연수(~13일)</p> <p style="text-align: right;">11</p>	<p>광주 여성희망포럼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김해 영어교육예술사과정 설명회 대구 신명고 클럽활동 안동 실버대(멋쟁이 클럽) 모임 안양 회원증모 중간보고회 울산 이주여성 한국어교실 인천 회원증모 발대식 진주 EM교육간담회-양동협회</p> <p style="text-align: right;">12</p>	<p>군산 어린이집 수목원 방문 김해 가아문화축제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대전 창립 65주년 기념예배 서울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속초 환경활동가 월례회 안양 결혼이민자 자원봉사단 독거노인 봉사활동 안양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 기금마련을 위한 큰 장날(~14일) 의정부 이사·위원 연구모임</p> <p style="text-align: right;">13</p>	<p>연합회 YWCA운동 기획회의 농협-한국YWCA EM기계 증정식 경주 직업교육 수료식 남원 신나는 공부방 체험학습 대전 돌보미클럽 부활절 연합예배 에너지 강사 수료생(반딧불이) 민들레모임 서울 방장고봉사단 홍보대사 위촉식 속초 결혼이민자 정보교육교 개강식 원주 성폭력예방 성교육-이화유치원 의정부 경기북부 사군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 충주 산모·신생아 돌보미 월례회</p> <p style="text-align: right;">14</p>	<p>사천 내 가족과 환경을 지키는 예코맘 양성교육 서울 직인 영성훈련(~16일) 의정부 고령자인재은행 거리 캠페인 제주 어린이집 현장학습 진주 에너지 절약 회의 평택 부활절 달걀 나누기</p> <p style="text-align: right;">15</p>	<p>광양 다문화 종이접기 교실 논산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대구 성화여고 클럽활동 '사랑더하기 나눔은 희망' 2차 멘토교육 대전 여성익스터 문화체험, 소비자의 날 행사 부산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함박웃음6 사천·수원 Y-틴 인준식 서귀포 청소년 탁구대회 서울 Y-틴·대학Y 연합 인준식 여수 씽크머니, 어린이 아나바다 장터 인천 청소년 문화존</p> <p style="text-align: right;">16</p>
<p style="text-align: right;">17</p>	<p>동부지역 이사·위원 훈련 광명 성교육 강사 모임 김해 자연생태아동지도사 개강 서울 구제역 피해농가 돕기 '사랑의 대바자회' 대구 부활절 달걀 나누기 서귀포 집단상담 프로그램 희망을 집(job)아라 8기(~22일) 서울 노원, 청소년진로설계사 개강 의정부 살림돌보미 1차 양성교육 개강(~22일) 익산 합창단 정기연습 제주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주 난쟁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18</p>	<p>서부지역 1단계 실무자교육(~21일) 대구 신명고 클럽활동 사천 청유감 발대식 및 교육 서울 송파 장애인 축제 익산 구제역 확산방지 위한 EM 캠페인 전개 제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p> <p style="text-align: right;">19</p>	<p>연합회 창립 89주년 기념감사예배, 제15회 좋은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군산 신임실무자 연수 남양주 아나바다 나눔장터 대구 교도소 선교예배 대전 회원증모 1차 중간보고회 동해 찾아가는 취업창구(~21일) 사천 소비자상담 대학 교육 속초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 수원 알음알음 나눔장터 원주 씽크머니 2차 경제교육-신림중</p> <p style="text-align: right;">20</p>	<p>강릉·포항 부활절 달걀 나누기 남원 환경의 날 아동 아나바다 대구 제87회 창립기념예배 부산 한사랑회 월례회의 여수 회원증모 발대식 창원 아나바다 장터(~23일) 천안 회원증모 발대식</p> <p style="text-align: right;">21</p>	<p>연합회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고양 신임사무총장 취임예배 광주 들불과 살림 아우회 김해 새터민영국지도사 개강 사천 초등학교 대상 실종예방 교육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EM 교실 속초·진주 부활절 달걀 나누기 여수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31일) 전주 전직원 연수(~23일) 진해 'Y맘과 함께하는 놀이세상' 나들이 평택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p> <p style="text-align: right;">22</p>	<p>광주 청소년 문화존 논산 다문화가정 불소풍 대구 청소년금융교육 토요학교 1차모임 부산 새터민과 함께하는 후기친 직장생활 만들기 어린이 농촌현장체험 캠프(~24일) 서귀포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스쿨-환경체험 서울 대학생 소비자활동가 양성교육, 송파 장애인 축제 울산 초록아이들 환경지킴이단 발대식 원주 체험환경학습 발대식 및 숲체험 인천 나눔장터 전주 전주천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제주 방과후 아카데미 연합체육대회</p> <p style="text-align: right;">23</p>
<p>남원·사천 부활절 차 달걀 나누기 제주 민들레학교 오카리나 공연</p> <p style="text-align: right;">24</p>	<p>고양·대구·안동·안양 부활절 달걀 나누기 대전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자조모임 '참사랑' 동해 집단상담 6, 7기 서귀포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강 서울 중국알기 연구모임 의정부 구직회원 재교육 월례회의 충주 산모·신생아 돌보미 신규자 교육</p> <p style="text-align: right;">25</p>	<p>연합회 창립 89주년 축하잔치 전국회장단 연수(~28일) 광명 어린이집 성교육 김해 가아문화탐방지도사 개강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사례관리교육 대전 여성익스터 예술치료 개강 창원 들불과 살림 월례회</p> <p style="text-align: right;">26</p>	<p>대전 회원증모 2차 중간보고회 원주 씽크머니 2차 경제교육-육민관중</p> <p style="text-align: right;">27</p>	<p>연합회 YWCA 제2차 정기포럼 강릉 일일차집 고양 이사·위원 연구모임 마산 어린이집 불 소풍 사천 다문화 이해 및 멘토링 교육 서울 1단계 지도자훈련(~29일) 수원 푸른흙 모임 제주 어린이집 현장학습</p> <p style="text-align: right;">28</p>	<p>남양주 회원증모 발대식 대전 결혼이민여성 테마특강, 요양보호사 월례회 울산 가사도우미 월례회 원주 성폭력예방 인형극 성교육-이화유치원 인천 전 직원 연수 제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청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p> <p style="text-align: right;">29</p>	<p>광양 다문화한글교실 군산 부설평화중고 현장학습 대구 성화여고 클럽활동 서울 마루BOX 해설이 있는 오페라·뮤지컬 의정부 우중란 이사와 함께하는 유쾌, 생애 풍선아트 전주 Y-틴 인준식, 청소년보호 거리 캠페인 제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제주여행</p> <p style="text-align: right;">30</p>

지속적 평화운동 전개로 통일부장관상 표창



지난 3월 2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13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한국YWCA연합회가 1980년부터 평화운동을 시작으로, '북한 바로 알기', '새터민 지원 프로그램',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 가운데서도 통일 한반도의 건강한 미래세대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분유 보내기 운동을 펼쳐온 데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첫 번째 '한국YWCA 정의포럼' 개최 : YWCA 정의운동은 무엇인가?



한국YWCA연합회는 2011년을 'YWCA 정의운동의 해'로 선포하고 YWCA가 추진하는 정의운동의 목적, 영역, 운동방식에 관한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확정하여 YWCA내·외부와 소통하며, YWCA 정의운동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31일 첫 번째 'YWCA 정의포럼'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의운동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정의운동 영역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의포럼은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YWCA다운 정의운동'을 기반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청소년의 존재와 재능, 지역사회 정의운동, 자연과 생명의 보전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p. 15 참조).

3월 월례아침기도회



두 번째 아침기도회가 3월 2일 연합회 강당에서 이사와 위원, 실무자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천진 중곡교회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28개 회원YWCA도 설교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했다(자세한 내용은 p.6 참조).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1년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천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회원Y 사무총장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강교자 회장의 '참 헌신의 동력'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YWCA 회원증모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최영우 도움과나눔 대표의 강연이 있었으며, 사무총장 역할 찾기 워크숍에서는 김형남 전 전주Y 사무총장의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신영희 청주Y 사무총장의 '지역 사회운동 전략세우기', 양현숙 광주Y 사무총장의 '부속시설운영의 원칙세우기'의 내용으로 발제와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YWCA 정의 운동의 과제 중 'YWCA돌봄 서비스의 과제 - 정의, 노동, 복지의 관점에서 본 돌봄'에 대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지고, YWCA의 운동에 대한 과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1차 신입사무총장연수

1차 신입사무총장연수가 3월 23일 버들캠핑장에서 진행되었다. 김해, 고양, 광주, 대구, 여수, 원주, 통영, 파주 총 8개 회원

Y 신입사무총장이 참여하여, 사무총장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그룹별 토의와 워크숍이 이어졌다. 이후 신입사무총장들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5부지역위원장 연수

지난 3월 3일 연합회 회장실에서 5부지역위원장 연수를 통해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1단계 실무자 교육



Y아카데미 중부지역센터 주관으로 2011년 1차 1단계 실무자교육이 3월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천주교 청주교구연구소에서 총 39명의 본부·부속시설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형 연합회 실행위원이 '활동가의 비전'을, 하미용 연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Y실무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유영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이 Y자원지도자와의 소통하는 의미를 나누었다. 또 곽성숙 Y아카데미 중부지역센터 위원이자 청주Y이사는 'Y 목적과 정체성'을, 유덕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은 '역사와 구조'에 대해 같이 나누며 Y실무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센다이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본 동부지역을 강타한 대형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금활동은 연합회가 총 3차례 걸쳐 거리모금을 진행했고 전국 53개 지역 회원YWCA에서도 활발한 모금을 펼치고 있다. 3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정오에 시작된 거리모금 캠페인에는 연합회 실행위원과 위원들이 앞장서 참여했으며, 전국 회원YWCA와 연합회 해피빈 모금함을 통한 일반 시민의 정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YWCA를 통해 현재까지 모금액을 포함 총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와 지원경로를 모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p.18 참조).

한국씨티은행과 청소년 금융교육 협약식



4월 1일 한국씨티은행과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씽크머니 협약식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미화 36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씽크머니'는 한국YWCA연합회 청소년운동의 전문성과 한국씨티은행의 금융기관 노하우를 결

합해 지난 2006년부터 6년째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학교, 방과후학교, YWCA 센터 등을 통해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굿모닝미인카드 전달식



한국YWCA연합회는 2006년부터 여섯 해째 농협중앙회와 함께 업무 제휴를 통해 농협 굿모닝 미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을 전달받아 쌀 소비 촉진활동과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해왔다. 올해도 2억 5천만 원의 굿모닝 미인카드 사용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3월 10일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연합회후원회와 알파문구 업무 협약식



3월 15일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알파문구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WCA 회원들이 알파몰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구입금액의 10.5%를 YWCA 운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알파 사회공헌활동인 연필장학회를 통해 회원 5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합회 신임운동가 교육 마무리



한국YWCA연합회는 6개월간의 연합회 운동가 입문 교육을 마쳤다. 지난 해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YWCA목적, 정체성, 운동, 시민사회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 토론, 현장방문, 멘토링을 포함한 25주차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24일 YWCA의 선배인 최용신 선생의 기념관(안산시 소재)과 샘골교회를 방문하였고 이천진 목사의 최용신 영성 강의를 들었다. 연합회 신임 운동가들은 젊은 기독 여성 운동가로서 최용신 선생이 지역에서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인 사랑을 오늘의 YWCA운동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인터넷방송국 YWBS

보이는 라디오 중계방송과 운영진 멘토링

3월 23일부터 웹카메라를 통해 현장 생중계 라디오 방송(www.afreeca.com)을 시작했으며 3월 31일에 열린 제1차 YWCA 정의포럼을 보이는 라디오로 중계해 실시간으로 회원 Y와 전국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합회 위원인 KBS 라디오 이주영 PD를 초대해 방송의 실제와 개인의 적성, 언론의 특수성과 직업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첫 번째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YWBS 방송 편성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시간도 가졌다.

바로잡음



3월호 회원YWCA 신임회장 소개에서 제주YWCA 신경인 회장의 사진이 바뀌어 다시 실습니다.

동정



3월 1일자로 고양YWCA 사무총장에 문춘9사회복지관 관장을 지낸 송미령 씨가 취임하였다.



통영YWCA 이사와 민들레학교 한글교사를 지낸 배윤주 씨가 3월 1일자로 통영YWCA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2010년도 결산총괄표 (2010.1.1-12.31)

(단위:원)

구분	세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관	항	목			
법인회계	사무비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적립금, 제수당	85,729,411	78,811,373	-6,918,038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3,020,000	2,908,200	-111,800
		운영비	교통비, 통신비	4,512,000	3,915,020	-596,98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200,000	2,645,998	-554,002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159,007,200	186,975,426	27,968,226
	전출금	전출금	지부전출금	28,000,000	18,005,000	-9,995,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340,000	17,806,782	9,466,782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200,000	7,236,610	5,036,610
	차기이월	차기이월	차기이월	-	40,777,199	40,777,199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	3,801,910	3,801,910
	소계			294,008,611	362,883,518	68,874,907
시설회계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3,550,132,702	3,322,689,937	-227,442,765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9,440,000	11,956,170	-7,483,830
		운영비	운영비	574,309,070	452,605,937	-121,703,133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557,878,790	545,598,820	-12,279,97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2,792,156,650	2,429,835,455	-362,321,195
	전출금	전출금	전출금	-	-	0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	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8,763,340	12,676,763	-6,086,577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14,273,368	256,677,843	142,404,475
	운영총당금	운영총당금	운영적립총당	8,000,000	12,000,000	4,000,000
	환경개선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8,000,000	12,000,000	4,000,000
	차기이월	차기이월	차기이월		302,519,161	302,519,161
	소계			7,642,953,920	7,358,560,086	-284,393,834
특별회계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2,226,727,238	2,151,823,077	-74,904,161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2,101,000	10,119,820	-1,981,180
		운영비	운영비	181,302,218	172,682,713	-8,619,505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216,925,420	194,610,840	-22,314,580
	사업비	사업비	일반사업비외	2,340,767,660	2,471,190,092	130,422,432
	전출금	전출금	전출금	25,720,079	13,000,000	-12,720,079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0	0	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0,135,778	16,979,111	6,843,33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7,745,740	202,354,162	94,608,422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5,000	857,795	852,795
	차기이월	차기이월	차기이월	0	115,850,038	115,850,038
	적립금	적립금	시설이전적립금	50,000,000	0	-50,000,000
	소계			5,171,430,133	5,349,467,648	178,037,515
총계			13,108,392,664	13,070,911,252	-37,481,412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2010년도 결산총괄표 (2010.1.1-12.31)

(단위:원)

구분	세입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관	항	목				
법인회계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이자수입	59,000,000	46,211,500	-12,788,500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52,000,000	62,229,680	10,229,680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53,263,000	84,926,291	31,663,291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66,663,611	47,226,703	-19,436,908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4,484,896	50,268,623	5,783,727	
	06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9,597,104	6,655,501	-2,941,603	
	목적사업비 준비금	목적사업비 준비금	목적사업비 준비금	9,000,000	59,641,680	50,641,680	
	선납세금	예수금	예수금/선납	-	5,723,540	5,723,540	
	소계			294,008,611	362,883,518	68,874,907	
	시설회계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2,287,586,910	1,825,882,377	-461,704,533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보조금	3,254,527,240	3,535,787,223	281,259,983
후원금				1,161,864,245	854,346,030	-307,518,215	
			외부지원사업	97,200,000	203,000,000	105,800,000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110,000,000	110,969,620	969,620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694,801,980	786,880,947	92,078,967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36,973,545	41,693,889	4,720,344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8,763,340	12,676,763	-6,086,577	
목적사업비 준비금		목적사업비 준비금	목적사업비 준비금	-	-	-	
소계				7,642,953,920	7,358,560,086	-284,393,834	
특별회계		사업수입	입소자부담금	보육료외	1,516,337,910	1,311,956,496	-204,381,414
		보조금수입	후원금	보조금	2,907,237,780	3,134,965,523	227,727,743
				후원금	182,842,000	85,156,000	-97,686,000
			외부지원사업	0	220,588,300	220,588,300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789,000	774,200	-14,800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42,150,000	66,614,670	24,464,67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85,909,022	485,912,408	3,386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36,164,421	43,500,051	7,335,630	
	소계			5,171,430,133	5,349,467,648	178,037,515	
	총계			13,108,392,664	13,070,911,252	-37,481,412	

경기 지역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고양YWCA합창단 창단 11주년 기념예배

3월 29일 하나로YWCA문화센터에서 합창단 창단 1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축하의 자리는 윤윤희 회장이 직접 만든 꽃다발과 합창단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더욱 따뜻한 생일맛이가 되었다.

Y-틴 발대식

3월 12일 열린 Y-틴 발대식에는 고양시 청소년 40여 명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앞으로 Y-틴 회원들은 EM으로 지역사회 하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 3월 28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4월 18일)

광명 YWCA ●김진숙 간사

EM 교육

3월 3일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EM 쌀뜨물 발효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각 가정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주민센터에도 동참하도록 계속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3월 11일 씩크머니 학교장 간담회-광덕초
- 3월 16일 주말버스 협약식-광명교육청
- 3월 19일 이사·위원 교육

남양주 YWCA ●임은희 간사

아나바다 나눔장터

3월 16일 열린 첫 장터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호응이 높았다. 수익금은 매주 화요일 조손가정에 반찬나누기 재료비로 쓰이고 있다.

- 3월 23일 씩크머니 협력학교 학교장 간담회
- 3월 28일 씩크머니 수업

부천 YWCA ●이은호 간사

민들레 아기영어학교(Baby English Nursery School) 개강

3월 8일 매주 화, 목요일에 24~48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부천 YWCA에서 민들레아기영어학교가 열렸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국 정통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첫 유아영어교육과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느끼게 도와주고, 음악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몸으로도 느끼는 오르프 수업으로 진행된다.

- 3월 3일 민들레 공부방 개강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1분기 본지부 실무자 포럼

3월 24일 수원YWCA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지부 실무자 1분기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안영민 민족21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3월 3일 푸른흙씨 모임
- 3월 9일 신입이사 연수
- 3월 11일 초등 놀토프로그램-미술교실, Y-틴 협의회
- 3월 14일 베이비시터 교육(~18일)
- 3월 15일 어르신 컴퓨터 개강
- 3월 16일 알음알음 나눔장터

- 3월 17일 EM 교육
- 3월 22일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 개강
- 3월 26일 초등 놀토프로그램-국립과학관
- 3월 31일 강아지통 모임

안양 YWCA ●조미영 팀장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

3월 8일 안양YWCA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식전행사로 YWCA 목적론 헌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창립이후부터 지금까지 후원해온 안양감리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배미숙 초대회장, 김지영 5, 6대회장, 유철남 7, 8대회장, 김영희 9,10대 회장, 정숙 11, 12대 회장, 정규애 명예이사, 김경희 전 사무총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안양YWCA 25년> 화보집을 헌정하고, '영상으로 보는 안양YWCA 25년'과 25년 비전영상을 통해 지난 25년간 생명사랑 공동체를 만들 고자 노력해온 YWCA 운동의 정신을 확고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임영숙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YWCA 회원다운 실천, YWCA다운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 3월 8일 창립 25주년 기념특강-안양YWCA의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 3월 29일 회원증명 발대식, 성인클럽협의회 및 성인클럽 인준식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의정부YWCA는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3월 7일부터 25일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조로 4개 지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한 아동보호와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YWCA는 돌봄과 살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 3월 10일 유해환경 감시활동

- 3월 17일 일본 대지진 피해 모금운동 '함께 극복해요!'
- 3월 25일 구직회원 월례회의·재교육(28일)
- 3월 28일 산모·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개강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 3월 7일 한글교실 개강
- 3월 14일 파주YWCA 공부방 오픈
- 3월 19일 일본 센다이·후쿠시마 YWCA 지진피해 돕기 모금
- 3월 21일 산모·신생아돌보미 기초과정 교육(~25일)

평택 YWCA ●남예슬 간사

산모·가사도우미 교육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여성 고령자 및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부 지역

경주 YWCA ●김효영 간사

경주YWCA 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

3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제1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공식 기념식에 초청연주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도민들에게 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수자원 관련 세계최대규모 국제행사인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을 도내로 유치 성공시키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였다.

- 3월 19일 소년소녀합창단 오디션(26일)
- 3월 22일 직업교육 개강

김해 YWCA ●배정숙 간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인증 및 개강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1년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13개 과정을 인증받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갔다. 취업을 목적으로 정보화, 조리, 서비스 분야에 20~40% 본인 부담으로 진행되는 훈련으로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밑반찬창업, 네일·포카아트 자격증, POP품아트 창업, 병원코디네이터 등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인증되어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3월 4일 자기주도학습 수료
- 3월 7일 제60기 가사도우미 교육(~11일)
- 3월 26일 Y-틴 자원봉사교육
- 3월 31일 동화구연지도사 수료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실무자 영성훈련

매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구YWCA 실무자들은 영성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관에서 일하는 자의 소명을 일깨운다. 올해는 이균성 목사가 3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주암산기도원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대구Y실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귀한 영성 훈련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YWCA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집단상담-희망 찾기 프로그램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월부터 희망찾기 프로그램이라는 이

름으로 집단상담을 시작하였다.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인생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인맥관리, 모의면접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취업과 자기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명 내외의 경력단절여성을 모집하여 월 두 차례-주 5일(하루 4시간) 실시한다.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 있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정부양곡배송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와 신규 지정된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년 6월부터 달서구 내 수급자 정부양곡택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1/4분기 생신잔치** : 대구YWCA노인복지센터에서는 1월~3월에 생신을 맞은 홀로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노인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3월 23일 무료훈련-텔레마케터 양성과정(~31일)

마산 YWCA ●이애라 간사

최신댄스 배우기 교실

실무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를 단련하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강당에서 최신댄스 배우기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총 8회 열리며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댄스를 배우면서 실무자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어설픈 몸짓이지만 서로 한껏 웃고 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오후 일과도 집중이 잘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위원회 활성화를 워크숍

3월 4일 부산Y강당에서 자원지도자, 실무자 총 31명이 모여 강의, 토론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실천방안 세 가지를 정해 모든 위원회가 노력하기로 하였다. 실천방안을 나누자면 : 첫째, 위원 1명이 새로운 위원 1명 확보하는 것에 힘쓴다(1+1위원 확보). 둘째, 위원회에 맞는 창의적인 안건

을 준비하여 토의한다. 셋째, 모든 위원회가 생활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쓴다.

- 3월 4일 강서구중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입학식
- 3월 5일 새터민 함께하는 '호기찬 직장생활 만들기' 역사탐방 부산진구중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입학식
- 3월 7일 부설어린이집 입학식
- 3월 11일 신입직원 교육
- 3월 19일 새터민과 함께하는 '호기찬 직장생활 만들기' 경제교육
- 3월 21일 클럽임원 교육
- 3월 24일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 발대식 친환경화장품 만들기
- 3월 31일 신입이사 연수, 나들이클럽 문화기행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저소득층 여성 자립기반 기금 마련 바자회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기반 기금 마련을 위한 의류 대 바자회를 사천YWCA 강당에서 열었다. 수익금은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바자회를 마쳤다.

- 3월 3일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실 개강식
- 3월 14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25일)
- 3월 18일 꿈샘지역아동센터 금연·금주·영양·구강보건·성교육(22일)
- 3월 19일 건강가정상담소 아동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 3월 24일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세계 물의 날 기념 국토대청결 운동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3월 22일 물의 날 기념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다. 회원과 이사 20여 명이 참여하여 안동댐과 월령교 주변의 쓰

레기 수거 작업을 하며 우리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요양보호사 교육 개강

3월 15일 제10기 요양보호사 교육 신규반 개강식이 열렸다.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상식에 서 소양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 교육생들의 호응이 높다.

- 3월 8일 신년교례회와 정기이사회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동요학교

새봄을 맞아 동요를 사랑하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요학교를 개강하였다. 첫 날 모임을 가진 이들은 자연과 사람의 감정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노랫말이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고 고운 동심과 어린이다운 감성을 되살리게 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해했다.

한국문화생활체험과 다문화 한글교실

3월 10일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체험 프로그램과 빠른 정착을 돕는 한글교실을 개강하였다.

울산 YWCA ●김선양 간사

이주여성 초청 커피 토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여성 초청 커피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커피와 함께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다문화 도서관 '단비' 개관

진주YWCA 다문화작은도서관 '단비'가 지난 3월 3일 활짝 열렸다.

진주Y 이주여성들의 재기발랄한 나라별 인사말과 공연을 시작으로 진주Y 정들연 회장의 인사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 한국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 GSE도시가스, 세신방개발에 감사패 전달,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진주지부 공연팀의 그림책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개관을 축하하고 '한하늘 한땅에서 함께 웃는 다문화이야기'를 펼쳐나갈 다문화도서관 운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9일 노인대학 개강식
- 3월 12일 동부지역 Y-틴 · 대학Y 임원 훈련
- 3월 14일 취약계층 노인소비자 교육-건강식품, 상조회 피해 예방법
- 3월 19일 EM 교육-삼일교회 여전도회, 난쟁지역아동센터 고성공릉박물관 방문
- 3월 26일 대학Y '꾸미망' 신입생 환영회

창원 YWCA ●황은진 간사

어린이집 입학식

3월 3일 창원YWCA 대강당에서는 꼬마 천사들의 입학식이 열렸다. 1년간의 휴원을 끝내고 지난해 재개원하여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입학식에는 99명의 입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인형극이 있는 입학식'이란 테마로 어린이집 문을 열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떨리는 첫 만남이 각 교실에서 이어졌다.

- 3월 8일 산모도우미 월례회
- 3월 10일 돌봄과 살림 조장 모임
- 3월 12일 토요 유아프로그램 개강
- 3월 26일 창원Y어린이합창단 오디션
- 3월 29일 돌봄과 살림 월례회

통영 YWCA ●임정순 부장

결혼이민여성 민들레학교 개학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민

들레학교가 열렸다. 지난해 출석률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상장과 선물로 격려했다. 민들레학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실버 한글교실 개학

지난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의 끈을 놓쳤던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이 개학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기초와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진의 협조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 YWCA ●김은미 팀장

강사 영성훈련 및 회원증모 발대식

3월 30일 포항Y에서 활동하는 강사들과 각 부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원 및 이사 위원들을 모시고 포스텍 국제관에서 강사 영성훈련과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강릉 YWCA ●전정미 간사

어린이-Y 인준식

어린이-Y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목적을 두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성된 클럽이다. 어린이-Y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어린이 회원을 YWCA 지도자로 양성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봉사, 테마학교, 씽크머니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다. 3월 26일에 1부 예배를 시작으로 2부 인준식, 3부 함께 나눠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준장 수여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Y 뱃지를 달아주면서 마무리되었다.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선배 정회원인 안양YWCA 정숙 직전회장과 박동순 사무총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으며 '정회원으로서 사명'이란 주제로 강의 후 분임토의를 통해 강릉YWCA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맞추어 실행하여야 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이 정회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강릉YWCA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단단한 Y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3월 10일 EM 강사교육
실무자 연수(~11일)
- 3월 15일 산모돌봄미 보수교육
- 3월 25일 다문화가정 후원 결연식

동해 YWCA ●송원진 간사

실무자 연수

YWCA의 실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무자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생명살림체를 통한 생명사랑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고 YWCA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자 연수가 3월 10일부터 1박 2일 동안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있었다. 이사와 실무자 총 15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서 동해Y의 존재감과 위치, 비전 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10일 소비자 상담 전문가 워크숍(~11일)
- 3월 22일 씽크머니 강사모임
- 3월 23일 어르신 소비자교육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제28회 서울YWCA 특별행사 뮤지컬 '광화문연가'

국내 최초 창작 뮤지컬인 '광화문 연가'가 서울YWCA 특별행사로 3월 21일 오후 8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광화문연가는 가수 이문세의 주옥같은 명곡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고 단일작곡가(고 이영훈 씨)의 노래로 만들어지는 뮤지컬이다. 관객들은 서정적인 음악과 가슴시린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으며, 특별행사는 환호와 박수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 3월 5일 103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 3월 12일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친환경 가족 텃밭 교육

속초 YWCA ●김현희 간사

다문화방문지도사 워크숍

3월 25일 속초경찰서 주관으로 다문화가족관련 국제결혼 및 법률교육을 다문화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별 관련법 교육으로 구성되어 사회통합법에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법 질서 이해와 결혼생활법에 가족법, 상속법 그리고 경제생활법에 생활 속 근로생활, 소비생활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 3월 3일 한국어 개강식
- 3월 15일 다솜아동센터 교통 안전교육
- 3월 25일 한화와 결혼이민자가 함께하는 독거어르신 밀반찬 나누기

원주 YWCA ●곽예진 간사

성폭력 예방교육

원주YWCA는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응방법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인형극, 영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주어 '내 몸은 소중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관내 6개의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5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3월 22일 성폭력 예방 인형극-학생유치원
- 3월 24일 씩크머니 경제교육-육민관중
- 3월 30일 씩크머니 경제교육-신림중

인천 YWCA ●김주희 간사

이사·위원 훈련

인천YWCA는 3월 18일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사·위원훈련을 진행했다. 연합회 강교자 회장의 'Y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 후 이사, 위원 역할 찾기 및 공동체놀이를 하였다.

- 3월 3일 어머니교실 개강
- 3월 14일 돌봄과 살림 솔루션회의
- 3월 25일 신입실무자 훈련
- 3월 30일 돌봄과 살림 보육사 교육

춘천 YWCA ●황재욱 간사

춘천YWCA 45주년 음악회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춘천YWCA는 3월 17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 명진학교 재학생, 구제역에 수고하신 국군장병 모두를 초청하여 지역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아티스트들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를 열었으며, 지역 각계 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음악회는 1층, 2층 객석이 가득 차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서부 지역

광주 YWCA ●손유영 간사

회원환영회 및 EM 강사교육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5일 회원환영의 밤 행사를 열었다. EM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Y회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즐거운 장이 되었다. 또한 도말순 양산벤엘병원 원장을 모시고 EM 심화교육을 진행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소생시키기 위한 Y의 노력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 3월 4일 세계기도일 예배
- 3월 10일 이사·위원·공천위원 오리엔테이션
- 3월 12일 청년·대학Y 홍보 및 클럽회원 모집 캠페인
- 3월 14일 씩크머니 강사 연구모임
- 3월 16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민관합동단속(~17일)
- 3월 18일 의류분쟁조정위원회
- 3월 24일 광주Y 봄장날(~25일)
- 3월 29일 제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4월 13일)

군산 YWCA ●박송이 간사

이사·실무자 연수

전남 신안군 증도일대로 3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최소희 증경회장의 영성 강의를 듣고 YWCA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섬 증도에 뿌리내린 순교의 열매들을 대초리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들으면서, 감히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순교를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전해수욕장을 돌아보면서, 해안 도로를 따라 걸으며, 태양광발전소와 태평염전을 둘러보면서 하나

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것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삶을 보게 되었다.

- 3월 2일 어린이집·평화중고 입학식, 교도소 여사예배
- 3월 11일 이사·실무자 연수(~12일)
- 3월 26일 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

남원 YWCA ●조윤희 간사

상반기 회원증모 발대식

지난 3월 28일 상반기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배가운동을 전제로 YWCA에 관심과 사랑을 실어줄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회원 발굴을 목표로 삼았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남원Y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 3월 5일 산모돌보미 바우처사업단 발대식
- 3월 8일 가정방문 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요가교실(~29일)
- 3월 17일 '산사랑'반 광양 백운산 산행
- 3월 22일 신나는 공부방 체험학습 '쿠기클레이'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서귀포Y는 3월 25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 귀가시간 지키기, 청소년 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이 활동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업소 단속을 통해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월중 매주 수 회관 마련을 위한 기도회

순천 YWCA ●김아라 간사

- 3월 2일 이사·회원 민들레모임 '루디아'-성경공부(매주 목)
- 3월 9일 대학Y STEP 정기모임
- 3월 10일 순천Y 합창단 조직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오천산업단지 기업체 간담회 개최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3월 10일 오천산업단지 조합회의실에서 오천산업단지(남선수산 조경남 대표 외 5명) 대표와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혜란 관장과 취업설계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인구직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개 업체 (한진산업, 남선수산)가 협약을 맺었고 향후 오천산업단지 여성인력난 해소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지원망 가동 실행위원회 개최

여수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난 3월 15일,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망 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다짐하는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접근해 다양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청소년 연계 기관들은 1차, 2차, 3차 지원망의 협력체계를 이루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진단 정도를 파악하고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고 적합한 지원경로를 모색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 2월 8일 이주여성센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3월 4일)
- 3월 3일 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3월 10일 여성인권지원센터, MBTI 성격유형검사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상담역량 강화연수

전주Y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전주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심리극의 실제'를 주제로 상담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했다. 청소년 관련 현장 실무자들

의 상담교육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도자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상담 및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주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적용 가능한 싸이코 드라마, 연극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기법을 익히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창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3월 4일 전주시내버스 정상화 위한 촛불문화제 참석
- 3월 5일 엄마사랑 산모사업단 발대식
- 3월 8일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순찰활동
- 3월 12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도로시' 창단식
- 3월 15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수료식
- 3월 23일 성인클럽 임원 대상 지도력훈련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가족친화적 행복문화 만들기 캠페인

제주Y는 지난 3월 8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가족친화적 행복문화 만들기 캠페인 'Thanks Mom, Thanks Company'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퍼포먼스로 표현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확산시키고 여성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희망트리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알아야 할 상식과 정책들을 담은 여성건강다이어리(W-mate)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3월 7일에는 각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역할 및 워킹맘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워킹맘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행복문화만들기를 위한 간담회 '여성이 있어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여유만만(女有萬曼)'을 진행하였다.

- 3월 8일 제주이주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취업지원 협약식
- 3월 11일 대학생 간담회 '캠퍼스 톡! Talk!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중부 지역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회원들과 함께하는 QT세미나

3월 11일 매일성경 대전지부회 임철 목사를 초청하여 회원들과 자원 지도자, 실무자가 함께하는 QT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묵상의 필요성과 순서 및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묵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다스림을 받는 삶, 인도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과 결단을 세우는 은혜로운 자리였다.

- 3월 8일 임원 연수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시민학교 한글교실 입학식

지난 3월 7일 한글을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학교 한글교실 입학식이 있었다.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님의 환영사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직 교사로 근무했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소개, YWCA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주민들이 앞으로 한글을 차근차근 익히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3월 4일 결혼이민여성 월별 테마특강-동화구연
- 3월 8일 돌봄과 살림, 살림-건강돌봄보수교육(10일)
- 3월 10일 지역아동센터 교사 성교육(14, 20일)
- 3월 22일 돌봄과 살림 임원 연수
- 3월 26일 Y-틴 동아리연합 워크숍(~27일)
- 3월 30일 자원지도자 연수

제천 YWCA ●류인숙 간사

효나눔복지센터 개강식

3월 3일 효나눔복지센터에서 내빈과 20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2011년도 프로그램 개강식을 하였다. 수탁 후 첫 행사였던 만큼 박영미 제천YWCA 사무총장 겸 효나눔복지센터장은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허울만 거창한 복지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수혜 대상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 총주담 단장은 YWCA가 수탁을 해주어 정말 다행이라는 내용의 격려사를 통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내비쳤다. YWCA가 수탁기관이 되면서 무료급식 사업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진 만큼 활발하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제천고용센터 취업성공 패키지 관련 간담회

3월 4일 제천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가 있었다. 25년간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실성과 지역 내에서 달라진 제천YWCA의 위상을 반영하듯 제천고용센터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에 참여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줄 것을 권유받았다. 여타 여성단체와 달리 업무를 추진할 다수의 실무자가 있고,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SMS 서비스 등을 이용한 원활한 소통기능, 사회적기업 울리의 팔목할 만한 성장, 관내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취업 및 알선 등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의사소통 교육

2008년 개관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봉사해 온 요양보호사들에게 보수교육 차원에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였다. 월 2회 보수교육을 통해 공단의 지시사항이나 모니터링 결과, 이론적 업무 보수교육은 받았으나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교육, 요양보호사 자신을 위한 심리치유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올 한 해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대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제천YWCA장기요양기관은 꾸준한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월 11일 도배사 교육 종강식
- 3월 17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18일)

조치원 YWCA ●홍진영 간사

제57차 정기총회 개최

구제역으로 인해 미뤄진 정기총회가 3월 8일 교육장에서 개최되어 조치원 군수를 비롯해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YWCA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 3월 9일 여성노인 개강식
- 3월 17일 신임이사 연수
- 3월 26일 씩크머니-영명보육원

천안 YWCA ●김상미 간사

환경구연동화 구연가 전문양성과정

충남환경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환경구연동화 구연가 전문양성과정을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며 총 32시간의 '키르키르 푸르미 동화구연가' 수업을 통해 강사단 10명을 배출하 천안소재 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 40곳을 대상으로 3회기의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동화구연의 저변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성인클럽 인준식

청주YWCA 회원위원회는 3월 23일 33명의 회원과 함께 성인클럽 인준식을 열어 총 16개의 클럽과 18개의 민들레 모임을 인준하였다. 이날 특강은 한국치유문화원 반태섭 대표가 맡아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며 클럽임원과 뿌리미들이 회원들과 함께 알차고 신나는 클럽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였다.

- 3월 7일 돌봄과 살림 교육

- 3월 17일 신임 지도자 교육
- 3월 26일 어린이 생태학교 야외체험학습

충주 YWCA

● 김애영 간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3월 25일 충주Y회관에서 각계 기관장 및 회원과 함께 충주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앞으로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이 취업 후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찬지원 서비스, 가족체험활동 및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울 예정이다.

- 3월 7일 구제역 대책활동-EM 만들기 및 보급
- 3월 17일 일본 지진 피해 거리모금행사(19일)
- 3월 25일 노인 일자리 발대식